

[말씀참고] 부산·경남지역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

- 지난 1월 두 차례* 개최한 설명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핀테크 업계와 금융권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느꼈음

* 1차(1.16일, 서울 창업허브/약 5백명 참석), 2차(1.25일, 디캠프/약 3백명 참석)

- 오늘 세 번째로 부산·경남지역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쁨
-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신 BNK금융지주 김지완 회장님, 빈대인 부산은행장님, 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 권기룡 이사장님,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님, 도와주신 부산시와 실무진들께 감사
- 올해는 핀테크 산업의 “골든 타임”,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많은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예정
- 이를 위해 ①혁신적 실험 지원, ②핀테크 투자확대, ③넓은 규제 혁파, ④인력·공간 확충, ⑤프론티어 확산 등 5대 전략을 발표·추진 중
-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혁신기획단장이 설명드릴 예정

▶ [전략①]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혁신적 실험 집중 지원

- 4.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, 핀테크 지원예산 79억원

▶ [전략②] 핀테크와 자본시장의 연계 등 핀테크 투자확대

-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제약 해소, 핀테크 전용펀드(150억원), 금융권 혁신투자 펀드 등 성장단계에 따른 자본시장 연계 지원

▶ [전략③] 핀테크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넓은 규제 혁파

- 200여건 규제개선 과제 검토, 매주 “핀테크 현장 금요미팅” 개최

▶ [전략④] 핀테크 맞춤형 인력 및 공간 확충

- 신기술 융합인재 양성, 핀테크 청년창업 지원(BNK 핀테크 크리에이티브랩, KRX-IBK 창공 등)

▶ [전략⑤] 핀테크 프론티어 확산

- 새로운 플레이어 출현 위한 인프라 혁신, 핀테크 박람회 개최 등 글로벌 진출 지원

- 특히, 4월부터 시행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우리 경제·금융 분야에 디지털 대전환*(Digital Transformation)을 가져올 것으로 확신

* “규제샌드박스는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질적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임. 이는 규제 체계의 대전환을 위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”(1.12일,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)

- 법 시행 즉시 혁신금융서비스의 테스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신청을 받았고, 그 결과 접수된 105건의 혁신성 등 검토 중
- 부산·경남 핀테크 기업들의 신청*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. 법 시행 후 본 신청과정에서 보다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기대

* 오늘 발표하는 부산·경남 5개 기업 중 4곳이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전신청

<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전신청 등 진행현황 >

▶ [사전신청, 1.21~31] 88개 회사, 총 105개 서비스 신청 완료

* 핀테크 기업 73개사(78개 서비스), 금융회사 15개사(27개 서비스)

▶ [우선심사 후보군 선정, 2월] 효율적·압축적 심사를 위해 최대 40여건을 우선심사 후보군으로 선정하여 법률상 요건 충족여부 등 예비검토 실시

- 혁신성 정도, 핀테크 분야별 대표성, 서비스 제공 준비상황, 금융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후보군 선정

▶ [우선심사 대상자 확정, 3월말] 우선심사 후보군을 대상으로 혁신금융 심사위원회 사전보고 등을 거쳐 최대 20여건의 우선심사 대상 확정

▶ [혁신금융서비스 지정, 4월중] 4.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직후, 우선심사 대상자 중 혁신금융심사위 및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

-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여러분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“혁신금융의 실험장”이 되도록 적극적·진취적인 자세로 운영해나갈 계획

- 부산·경남지역에서는 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, 금감원 부산 울산지원 등이 친절한 안내자이자 적극적인 지원자가 되겠음

※ 규제샌드박스 지원자로서 정부의 역할(1.12일, 대통령) : ① 친절한 안내자 ② 적극적인 발굴자 ③ 효과를 충분히 홍보하고, 적극적인 문제 해결자가 될 것

- 부산은 금융공기업, 금융회사 등 인프라가 집적된 금융중심지로서, 혁신적 기술들과 만나 “핀테크 특구”가 되기에 매우 좋은 환경

- BNK부산은행을 중심으로 거래소·IBK 등 부산지역 금융권이 문현금융단지내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

* BNK 핀테크 크리에이티브랩, KRX-IBK 창공(스타트업 발굴·육성 플랫폼) 등 운영

-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부산이 ‘글로벌 핀테크 허브’로 거듭나고, 이를 통해 대한민국 혁신금융의 “붓물”이 터지길 기대함